

# 제주방언 연구의 생태 언어학적 가치

강 정 희(한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 I. 들어가는 말

21세기 들어서면서부터 제주도가 유네스코 자연환경 보호 제도 분야에서 3관왕을 차지함으로써 세계적인 브랜드로 급부상하기 시작했다.

2002년의 ‘생물권 보전 지역 승인’, 2007년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2010년의 ‘세계 지질공원 인증’을 받아낸 것은 제주 역사상 획기적인 성과로 인정받기에 충분한 것이다. 게다가 2011년 5월 현재 스위스 뉴세븐 원더스(New 7wonders) 재단이 주관하고 있는 ‘세계 7대 자연경관’ 최종후보지에도 올라있다. 이 기획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가 비록 유네스코와는 무관한 단체라고 하지만, 세계인들에게 제주도가 세계 7대 자연경관의 강력한 경쟁지임을 인식하게 해주는 프로젝트임에 틀림이 없다.

제주도가 유네스코로부터 3개 자연 환경 분야에서 인증 및 등재될 수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자연 환경’이 잘 보존,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자연 환경이 잘 보존, 유지되었다는 것은 곧 이 자연 속에 살고 있는 ‘생태계’가 잘 보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네스코의 이상과 같은 분야의 평가는 인간과 자연 환경과의 관계에서 자연 환경에 대한 평가 결과이다. 모두 제주도 사람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에 충분한 평가이다.

그러나 언어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

2010년 10월 제주도가 ‘세계 지질공원 인증’을 받고 곧이어 12월에 유네스코는 다시 제주 사람들이 쓰는 ‘언어’에 대해서 ‘소멸 위기의 언어 레드북 프로젝트’에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한 언어(Critically Endangered Language)’로 분류, 등록했다<sup>1)</sup>. 이 단계는 언어병리학에서 말하는 사망 바로 전단계인 ‘빈사’ 상태에 해당하는 것이다. 제주방언이 전 세계 언어 6천 여 개 개체 중에서 죽음 직전에 와있는 소수의 암 말기 언어라는 의미인 것이다.

유네스코가 제주방언을 죽음 직전의 언어로 등록한 것은 결코, 분명히 제주 사람들이 자랑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이 언어를 자연경관처럼 잘 보존하지 못한 데 대한 일종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마땅할 것이다. 이 언어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제주방언 화자들이 공통으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방언을 평생 연구해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본 필자도 그 책임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못할 것이다. 죽음으로 치닫는 제주방언의 소멸 속도에 우려만 해왔지, 어떤 회생, 관리방법을 실천할 수 없었던 점을 연구자의 한계로만 치부해왔기 때문이다.

1) 2007년 국립민속박물관과 국립국어원이 공동으로 제주방언을 유네스코 지정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한 언어’로 등재된 것은 필자 개인으로서 아쉬운 감이 있다.

이제 우리는 제주방언의 회생, 보전의 경고장을 받은 셈이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곧 우리 제주도 사람들과 연구자들에게 주는 교훈이 되는 시기다.

생태학의 원리를 채용하지 않더라도 ‘쓰지 않는 말은 소멸되는’ 일은 아주 자연스럽다. 제주방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우려할 만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은 현재가 곧 제주방언을 회생, 활성화해야 할 출발점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실에서 본 발표는 제주방언을 왜 살려야 하고 연구해야 할 것인가, 즉 그 중요성 대해서 생태학의 이론 안에서 살펴보고 빈사 상태에 놓인 이 방언의 회생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기로 한다.

## II. 언어와 문화유산

문화는 의식주 등의 물질적 문화 뿐 아니라, 언어 사용 집단의 우주관 세계관, 사고방식과 같은 정신세계를 포괄한다. 언어는 이와 같은 ‘문화’의 두 측면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첫째는 어떤 사회가 구축한 문화는 언어에 반영되기 때문에 언어를 잘 살펴보면 그 사회의 문화적 특징을 읽어낼 수 있다. 둘째, 언어 속에는 언어 집단의 과거, 현재의 정신세계가 반영된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우리 조상들로부터 이어져온 정신세계의 현재형이다.

오래전부터 언어학자와 철학자들은 ‘언어와 인간, 언어와 사고’ 그리고 ‘인간과 사고’라는 함수관계에 대해서 언어는 인간의 사고의 외적 표현 수단이라고도 하고 또는 ‘존재의 집’이라고 해왔다. 이는 어떤 사상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표현하는 언어가 있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말하자면 인간에게 만약 언어가 없었다면 존재 자체를 의식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언어=인간 존재의 집’이라는 등식에서 우리가 ‘집’ 속에 담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정신세계를 망라하는 ‘문화’다. 그러므로 방언문화가 잘 보존된다는 것은 해당 방언 사회의 경험세계와 정신세계의 전통성 및 정체성의 보전을 의미한다.

오늘날 국내 다른 지역 방언의 소멸 단계는 제주방언에 비해서 더욱 우려할 만한 단계에 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호남지방의 무형문화재인 ‘판소리’와 강릉지방의 ‘단오제’가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받았음을 알고 있다. 이 두 문화재가 ‘자연 환경’과 다른 점은 그 대상이 ‘소리, 구술’ 즉 언어, 그리고 ‘행위’로 이루어져있는 ‘방언 문화’라는 점이다.

지역의 전통 문화는 서민층들의 삶의 현장을 이해할 수 있는 무형적인 자산이다. 전통 문화 중에서도 구전으로 전승되는 구비 문화들 -신앙 의식(굿), 제례 의식, 무가, 민요, 설화, 속담 등에서는 지역 방언을 기본적인 수단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판소리와 강릉 단오제 속에는 호남과 강릉 지역 사람들의 과거, 현재의 세계관, 가치관, 정체성과 같은 정신세계를 알 수 있는 지역 방언이 잘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그러나 2010년 12월에 유네스코는 제주방언을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언어’로 분류 등록하였다. 즉 ‘관리 대상’의 언어로 지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리는 2011년 1월의 각 언론의 보도 분위기는 유네스코에 제주방언이 ‘등재’되었다는 ‘등재’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미 인정받은 자연 환경 분야의 평가와 다른 지역 방언의 경우와 전혀 다른 평가라는 사실을 외면하려

한 것은 아니었을까?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방언의 소멸 단계로 측정할 경우 제주방언과 별 다를 바 없는 강릉과 호남의 방언으로 이루어진 '무형문화재'들이 유네스코에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해당 지역 방언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 무형문화재를 건강하게 보존한 것이며 이 근저에는 이들의 지역 방언에 대한 자긍심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제주방언이 국어사적으로나 언어학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국내 학계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앞의 두 지역처럼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지 못한 근본적인 요인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 제주방언문화 유산으로서 판소리나 강릉 단오제를 능가할 만한 민속 문화 형태가 보존되지 못했고, 설혹 있다 하더라도 원형 보존도 그리 잘 되어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주에는 다른 지방이 갖지 못하고 있는 제주 특유의 전통 민속 문화로서 '영등굿'이라든가 '노동요'로서 '해녀가' 등이 있다. 이 문화재들도 판소리와 강릉 단오제처럼 제주 지역 '방언'을 바탕으로 하는 '소리'와 '행위'의 문화다.

그런데 이 문화재들은 제주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이미 오래 전에 소멸의 길로 접어들었거나 변질되어 버렸다. 영등굿은 마을마다 그 규모가 작아지거나 지방문화제 등의 행사에서 공연하기 위한 공연성이 많아지는 변이형으로 바뀌어가고 있으며, 해녀 노래는 해녀 수의 감소로 인해서 소멸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점이 요즈음 우리 제주방언 무형문화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 밑에는 제주방언에 대한 제주방언 토착화자들의 제주방언에 대한 자긍심의 결여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 방언의 보존이란 명제는 곧 지역 방언으로 이루어진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함께 할 때 그 생명력이 강해질 수 있다.

### Ⅲ. 제주 방언 연구의 중요성

#### 1. 외래종에 밀려 사라지는 토종 방언을 살려야 한다.

환경론자들은 멸종되어가는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온 힘을 쏟는다. 그것은 자연 보호가 바로 인간 보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언어 생태계 보호에는 관심이 그만 하지 못하다.

최근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은 자연 환경 보호, 생태계 보호가 그 핵심 분야이다. 그러나 이 사업 어디에도 각 지역의 파괴되고 오염되고 있으며 심지어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지역 방언의 언어 생태에 대한 보호 사업은 없다. 이것은 정부가 생태계, 자연 보호가 인간 보호라는 점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즉 정책 제안자들의 생태의식의 결여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제 자연 환경 보호와 동일하게 소멸 위기 단계에 와 있는 제주방언도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의 일환으로서 보호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유네스코로부터 '보호해야 할 언어'로 인정을 받아서가 아니라, 제주 방언이 가지는 국어사적 가치 외에 제주의 정신 문화재들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제주 방언이기 때문이다. 즉 제주 방언의 보호는 해체되고 사라지는 제주민의 정신문화재들의

보호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역사가 '홍망성쇠'의 반복이라고 할 때 언어 또한 '홍망성쇠'의 역사를 지닌다. 언어를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연구 대상으로 하는 역사 언어학이나 생태 언어학이 사용하는 언어의 소멸, 생존과 같은 용어들이 이를 반영한다.

생태계에서 서로 다른 동물들과 식물들이 서로 균형을 유지하기도 하고 생존경쟁을 하는 것과 같이 그래서 서로의 존재가 의존적인 것과 같이 언어들 사이에도 서로 균형이 유지되거나 또는 서로 경쟁을 하게 된다.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는 환경 파괴와 외부 세계로부터의 강력한 존재의 공격에 의한 결과로 일어난다. 특히 생태계 안의 강력한 외래종의 침략으로 인한 변화는 그 속도와 개체의 멸종으로 이어진다. 토종과 외래종 간의 강력한 충돌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는 대부분 외래종의 승리로 끝난다. 예를 들면 1980년대 늪생태계의 황소개구리의 등장으로 토종개구리의 개체수의 감소와 멸종 위기로 몰아왔고, 숲생태계에서는 청솔매가 토종 다람쥐를 멸종 위기의 개체로서 그 생태지위가 낮아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언어 생태계도 이와 동일한 현상이 일어난다. 일정한 언어생태계(언어 공동체)에 외부에서 제2의 우세어가 들어오면 토착화자들은 이 언어에 대해서 저항과 타협, 그리고 항복의 태도를 취하게 된다. 그 결과 관찰되는 것이 언어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유형의 언어 변화의 모습이다.

토착 언어의 보존을 토착화자들이 외부에서 들어온 우세어에 저항해서 이겨낸 결과라면 토착 언어의 소멸은 주로 타협과 항복이라는 약세적인 태도의 결과이다. 타협과 항복은 토착화자들의 언어 공동체에 대한 결속력, 정체성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속도와 수준으로 나타난다. 제주방언의 급속한 변화, 소멸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데에는 제주방언 화자들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외래종 언어에 대한 저항을 포기하거나 타협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 제주방언 생태계 안에서 관찰될 수 있는 외래종인 우세어와의 타협형이 우세어와 함께 생태 지위가 확산되고 있다.

- 가. 아지다.(앗다 × 가지다)
- 나. 고추룩 (같이>골이 × 추룩)
- 다. 있수다, 없수다,(있-/없- × - 수다)
- 라. 먹었수다.(먹었- ×-수다)
- 마. ㄹ르니까, 말ㅎ난(ㄹ르- ×- 니까, 말 × ㅎ난)
- 바. 가시쿠가?(가 -시-쿠가)

## 2. 토착 방언 화자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다.

언어의 소멸은 개인 차원에서 설명하는 것이 쉽다. 예를 들어서 한 개인이 죽으면 그 사람이 사용하던 개인의 말도 죽는다. 제주도 인구 -인간 생태계에서 개체수의 감소는 곧 제주방언의 감소, 소멸을 초래한다.

제주도 인구는 출생율의 저하와 청소년 집단과 젊은 집단의 육지로의 유학 및 취업으로 인한 이주로 인하여 최근 10년 동안 감소 추세에 있다.

제주도 100여 만 인구가 모두 방언화자라고 한다면 방언 소멸의 시기는 훨씬 늦어질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인구'란 토착 방언을 구사하는 노령층이나 전통문화와 구비 전승 문화의 보유 인구수를 말한다.

'신바치'와 '갓바치', '심방', '좁녀', '테우리' 등 제주의 기층 문화를 이루는 각 분야의 토종 방언 구사 가능 인구의 감소는 이 분야의 토착 방언의 감소를 의미하고 토착 방언을 구사하는 노령층의 감소는 생활어의 방언의 소멸을 수반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자연 생태계에서 개체수의 감소와 멸종에 따른 개체집단의 특성의 소멸에 대응되는 언어 생태계의 모습이다.

이번 유네스코에서 제주방언을 심각한 위기에 처한 언어로 분류, 등록한 기준은 바로 이와 같은 생태학적 기준에 의한 것이다.

- 1) 세대 간의 언어 전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2) 화자의 절대수가 감소하였다. - 토착방언 화자 인구수 감소
- 3) 전체 인구 대비 해당 언어 구사자 비율이 매우 저조하다. - 70대 이상 고령자 세대에 국한됨
- 4) 언어 사용 분야에 변화가 없다.
- 5) 새로운 영역, 매체에서의 반응 - 큰 방언 차로 의사소통 불능, 매체 언어로 활용 불가능
- 6) 언어 교육과 읽고 쓰기 자료 사용 여부 - 영어 교육 우선 풍조에 밀림
- 7) 해당 언어에 대한 공식적 지위 부여와 사용을 포함한 정부와 해당 기관의 태도와 정책  
- 지자체 내에서 공식 언어(이중 언어) 불인정
- 8) 해당 언어에 대한 그 지역 사회 구성원의 태도 - 언어 공동체 구성원들의 방언 정체성 결여
- 9) 해당 언어 자료의 양과 질 - 자료 수집 및 연구자 빈곤

이상의 9개 기준에 제주방언이 모두 미달되었다는 현실이 제주방언 공동체 안에서 자각, 측정된 것이 아니라, 유네스코라는 세계적인 기관에 의해 평가되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겸허하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제주방언의 소멸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제주방언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실천이 확산되어야 한다.

제주방언 생태계의 파괴와 소멸은 곧 제주 사람들의 정신세계의 파괴를 의미한다. 이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정신, 사고-언어-환경, 사회'의 연결고리가 끊어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3. 국어사의 살아 있던 보물이 죽어가고 있다.

국어학과 방언학 연구에서 늘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인접 강대국의 잦은 침략으로 많은 문화유산 -기록 문화유산들이 소실되었다. 그 결과 우리 정신의 뿌리인 국어사 연구에 많은 어려움을 안게 되었다. 이와 같은 기록 문화유산의 공백을 각 지역 방언의 산 자료가 보완해주고 있다 그 중에도 제주방언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 외부와의 접촉이 불가능한 고립된 자연 환경으로 섬 안에서 방언의 고유형을 형성하거나 고대 국어형으로부터 중세, 근대를 지나 20세기

초의 국어가 잘 보존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점으로 인해서 국어사 연구에서 제주방언의 가치는 다른 지역 방언에 비할 바 없이 매우 귀중하다는 평가를 받아오고 있다.

다음의 몇 가지 예들은 국어사의 고대, 중세, 근대 시기 자료에서 읽을 수 있는 어형들이 제주 방언의 고행(보수형, 토착 방언형)으로서 살아있는 것들이다.<sup>2)</sup>

1) ㉠ 오늘 메틀고? 메틀날 갈 거옴 해니?

(며칠) (며칠날)

㉡ 오늘 메틀이나 나시니?

(오늘 며칠이나 되었니?)

‘메틀/metir/’은 고대국어에서 모음 사이에 \*t를 가졌던 단어들 중에서 날짜를 헤아리는 \*hotor과 (이기문, 1981, 70) 비슷한 시기의 어형을 보여주는 귀중한 예다. 현재 \*t를 유지하고 있는 날짜 단어는 /it-ir/(二日), /it-he/(二年, 두 해째) 정도다. \*hotor은 \*hot-or 로 분석하여 \*hot(홀, 單, 하나)-or (일)로 보일 수 있듯이(이기문, 1981, 77) /met-ir/은 /met(何)-ir(일)/로 보일 수가 있다.

2) 막걸리 놓고 통밀로 소상이나 대상 때 상에 올리는 찌뽕은?

상왜떡.

‘상왜떡’은 高麗歌謠 ‘雙花店’의 ‘상화떡’으로 소급할 수 있는 고행이라 하겠다.

이 ‘상화떡’은 ‘상화>상회>상외/상왜’로 수의변이형으로 발화되며 이 떡의 모양은 밀가루 등을 발효시켜서 둥근 찌뽕 모양이나 작은 베개 모양으로 길쭉하게 만든다. 이 밀떡 속에는 현재의 만두(饅頭)와는 달리 속에 소를 전혀 넣지 않는다. 현재 제주도에서 제사 등에 이 ‘상왜떡’을 상에 올리는 집이 많다. 그러나 이 어휘도 ‘찌뽕’에 밀려나고 있다.

3) 다리? 가달. 막 쓰는 말이주.

처용가의 ‘脚烏伊’를 이기문(1981, 82)은 ‘가드리’로 읽고 있다. 그는 “ ‘가르리’에 依據하여 쉽게 解讀된다. 中世國語의 ‘가를’의 古代形은 \*kator(가들)이었던 것으로 推定된다.”고 하였다. 이 추정은 현재 조사된 본 자료나 제주방언에서 현재 부분적으로 발화되고 있는 katar(가달)로 증명된다.

4) 일본 완 두불서방해여그네, 나 온 후젠 두불서방 얻을거 아니?

‘두불서방 허다, 두불서방 언다’는 ‘再婚하다’라는 이 방언의 관용 표현이다.

‘두불서방’의 ‘두불’은 鷄林類事的 ‘二日 途亭’<sup>3)</sup>(\*두불>두불>두울>둘)로 소급할 수 있는 매우 오래된 고행이다. 이 방언에는 농사 용어로 ‘초불 검질, 두불 검질 매다.’(애벌, 두 번째 김매기를 하다)라

2) 본 내용은 강정희(2005)의 내용을 요약한 것임

3) 강신항(1980,36)과 이기문(1981, 96) 참조.

는 표현을 아직까지 발화하고 있으나 (3)과 같은 ‘두블서방 ㅎ다/ 언다’라는 표현은 현재 제주 방언에서는 듣기 힘든 자료이다.

5) (11) 저울에/로 저울여보난 한 칭(秤)은 되염직 해네(저울로 재다)

‘저울’과 관계되는 ‘저울대, 저울 갈구리, 저울눈, 저울뿔(추)’ 등 재래식 저울이 없어지면서 사라진 어휘들이다. 이 ‘저울’은 12세기 문헌인 鷄林類事에 ‘秤曰雌孛’로 소급되는 어휘다.

6) 제사 때 상에 올리는 밥, 국은? 밥은 메, 국은 갱(갱국).

‘메’와 ‘갱’은 중세국어형이 이 방언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예로서 일상생활에서는 쓰지 않고 차례상 차림에만 쓰는 존대 어휘다.

흔번 피 자셔든(一飯)<小언 四, 12>  
 다 자시똥 기드려 피를 설고<家언 四,24>  
 그 아비 영장 ㅎ는 날애 오히려 굶깁을 먹거늘<小언 五, 48>  
 깁 밍그라 머기라<救간, 111>

7) 아방 죽언 영장ㅎ젠 ㅎ난 돈이 어디 셔?  
 (아버지가 죽어서 장사 지내자고 하니까 돈이 어디 있어?)

‘장사지내다’의 중세국어 형은 ‘영장ㅎ다’다. 최근 제주도에서 이 어휘는 고품으로 되어가고 있고 대신에 표준어에서 들어간 ‘장례치루다/지내다’가 그 영역을 확보해가고 있다.  
 ‘장례식에 참가하다/가다’는 “(영)장발디 감수다.”의 보수형 표현을 쓰고 있다.

영장ㅎ다(下葬)<同文 下 10>  
 그 能히 영장(營葬) 묻 ㅎ 거슬<小언 六 32>

이상에서 국어사의 각 시대 언어 모습들이 그대로 제주방언에 살아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고품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화자들의 절대수가 감소함에 따라 이 언어들도 사전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죽은 언어이거나 죽음 직전에 놓인 언어로 분류되어가고 있다.

IV. 제 안 -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자

유네스코로부터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한 언어’로 분류된 제주방언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는 일이 우리 제주도민들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이 과제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부터 어떻게 누가 할 것인가? 를 생각해보기로 한다. 우선 민-관-학제간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선결문제이다. 그런 후에 다음과 같은 일들을 정책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1. 토착 방언 화자 발굴 및 보호 및 육성 정책 실시

노년층의 토착 방언화자 인구수가 계속 감소하는 현실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방언 채록 및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 방안을 세워야 한다.

건강한 화자라면 방언 교육 현장에 투입하는 방법도 있다. 이들을 초중등학교에서의 방언 교육의 '방언 교사'로서의 활용 방법이다. 또한 이들을 통해서 젊은 층들에게 방언을 전수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토착 방언화자들을 육성하도록 한다.

이 방안은 호남의 '판소리'가 잘 보존된 이유 중의 하나로 판소리 전수자들을 '판소리 전수관'이라는 교육기관의 교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육성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서 설득력이 있다고 믿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주에서는 '제주방언 학교, 또는 제주방언 전수관'이라는 교육기관을 각 지역에 설치하여 방언 화자들의 인구 저변 확대를 기해야 한다. 제주 방언 전수관에서는 제주 조상들이 사용하던 생활어, 민담, 설화, 속담, 민요, 노동요 등의 제주 방언 문화 전반에 걸친 구연자들을 육성하는 교육 내용으로 전수가 이루어지도록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한다.

### 2. 방언 교육의 강화

표준어와 방언은 서로 이중체계로서 존재한다. 젊은이들에게 표준어 중심의 단일언어 교육에서 벗어나 표준어와 방언을 모국어로서 다 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방언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크게 1)교육 현장, 2)교육 행정 이 상호 협조 관계에서 실시하는 방법이 있다.

#### 1) 교육 행정

초중등학교에서의 방언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인적 자원 확보 정책이 시급하다.

앞에서 제시한 노년층의 방언화자를 1일 교사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이 방법은 교사와 학생들 사이의 세대차로 인한 의사소통상의 문제, 교육의 전문성의 부족 등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 해결과 노년층 자원봉사 방언 교사들이 돌아가신 후 그 기능을 이어받을 국어과 교사들에게 방언 교육 연수과정을 실시하는 방법과 임용 시 영어과 교사들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제주 방언 구사능력을 반영하는 방법도 적용해볼 만하다.

#### 2) 교육 현장

국어시간 외에 음악 시간을 방언 교육의 장으로 활용한다.

국어과의 방언 교육은 7차 교육 과정에서 각 지역과 언어에 대한 단원이 있으므로 이 단원을 초등학교부터 중등학교까지 수준별, 단계별로 교재를 개발하는 작업이 우선 필요하다. 제주도 전 지역이 공통 교재와 교안을 가지고 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방언 교재에는 제주방언으로 이야기하기, 역할극하기, 연극, 영화의 한 장면을 제주방언으로 바꿔보기, 제주 방언 자료 채록 하기 등의 다양한 내용을 담아 학습자들에게 흥미를 가지게 해야 한다.

음악과는 사라진 제주 전래 동요, 민요들을 발굴해서 교육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주 방언으로 창작 동요도 만들어서 교육한다면 노래로 배운 제주 방언이 국어과에서 기대하지 못했던 학습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될 것이다.

### 3. 방언 문화 활성화 - 제주방언 마을 운영

방언 문화란 방언으로 이루어진 모든 문화를 망라한다. 전통 구비전승 문화 외에 방언으로 쓴 문학 작품들도 물론 해당된다.

방언으로 시연되는 민속 문화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가진다. 즉 특정한 시기와 장소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주민이나 관광객들이 접해볼 기회가 부족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현재 제주도에 있는 민속마을을 '제주방언 체험 마을'로 강화하도록 한다.

모든 사람들이 이 마을에 들어가면 제주 방언으로 의사소통과 모든 민속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방언 교육의 체험 학습장으로서 민속 마을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 4. 지역 대중매체들의 방언에 관한 관심

제주 방언 보존에 있어서 대중매체의 역할은 매우 크다. 그 중에서도 TV의 힘은 다른 대중매체의 최우선에 선다. 그러므로 지역의 TV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의 제주 문화와 제주 방언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지역 대중매체는 제주방언에 대한 자긍심, 정체성 확립에 대한 논의,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서울말을 과잉 사용하는 일에 대한 재조명, 제주방언의 관광 상품화에 대한 여론 및 방법 조사 등의 시사 프로그램에서부터 방언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법, 방언 알기, 그리고 방언 화자들의 발굴 및 소개 등과 1~3에 제안한 방안들의 내용을 제주도민들에게 알려주고 교육하는 기능을 수행할 때 지역의 대중매체가 제주 방언 보존에 한 몫을 하게 되는 것이다.

### 5. 방언 연구자를 위한 지원 정책 실시

제주방언 연구자의 수는 전국 지역 방언 연구자 수에 비해서 매우 영세하다. 그 이유는 제주 방언의 큰 방언차로 인해서 다른 지역 출신 국어학자들이 제주방언을 이해하거나 구사할 수 없기 때문

이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서 제주 방언 연구는 주로 육지 각 대학에 분포되어 있는 제주 출신 국어학자들과 제주도에 거주하는 제주 토박이 연구자나 대학 교수 모두 합해서 10여명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육지에 있는 연구자들은 주로 방언 자료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 제주 현지에 있는 연구자들은 자료 수집 등의 현장 연구로 특징지를 수가 있다.

그러므로 방언 전수자를 육성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제주 민속 및 구비 문화 자료와 방언자료를 채록하고 보존, 연구하는 연구자들을 위한 연구 기반 조성이 시급하다.

다행히 2005년부터 국립국어원에서 전국 지역어 조사 사업과 2007년부터 각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민족 기층생활어 조사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국고 연구비로써 제주 지역어에 대한 본격적인 자료 조사 및 수집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문화관광부 인정 기관인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에서는 문화원 총서로서 제주 사람들의 구술 발화 채록한 자료를 출판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조사 사업이 없다는 사실은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볼 일이다.

그 외 도내에 젊은 국어학, 언어학의 이론 연구자가 매우 빈약한 현실도 개선, 보완해야 할 일이다. 자료 수집과 이론적인 연구를 겸할 수 있는 다음 세대의 젊은 연구자들을 배출하는 일은 단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대학의 '국어국문학과'를 대학 차원이든 제주도청의 교육 정책으로 '특성화'시켜서 젊은 연구자들을 육성하고 이들의 연구를 위한 재정적 뒷받침을 지속적으로 해야만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강정희(2005), <제주방언 형태 변화 연구>, 역락.  
 \_\_\_\_\_(2007), <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제주 사회 변화와 제주 방언의 변화>, 《새국어생활》, 제17권 제4호, 국립국어원.  
 \_\_\_\_\_(2008), <생태언어학과 방언학>, 《겨울 국어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국어학회.  
 \_\_\_\_\_(2009a), <소멸 위기의 지역 방언 연구>, 《제6회 한국방언학회 전국학술대회발표논문집》, 한국방언학회.(별지)  
 \_\_\_\_\_(2009b), <제주방언이 보조동사 '불다'에 관한 형태론적 연구>, 《한국언어문학》, 제68집,  
 \_\_\_\_\_(2010a), <제주방언 혼성형에 대한 생태학적 고찰>, 《방언학》 10집, 한국방언학회.  
 \_\_\_\_\_(2010b), <지역 방언의 생태학적 연구 방법>, 《최명옥 선생 정년 퇴임 기념 국어학 논총》. 최명옥 선생 정년 퇴임 기념 준비위원회.  
 국립국어원,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2008), 《제주지역어 생태 지수 조사보고서》(강영봉 외)  
 권투시안(2005)(역), 《언어의 죽음(Language Death)》, David Crystal(2000), 이론과 실천.  
 김광해 외(1999), <국어지식 탐구>, 박이정  
 김옥동(2003), 《생태학적 상상력》, 나무심는 사람.  
 김정화(2003)(역), 《사라져 가는 목소리들(Vanishing Voices)》, Daniel Nettle, Suzanne Romaine (2000), 이제이북스.  
 김항원(1999), <제주도 주민의 정체성>, 제주대학교 출판부  
 두행숙(2005)(역), 《멸종-종과 민족 그리고 언어 사라진 것들-》, 프란츠 부케티츠(2003), 들녘.  
 박옥현(1999)(역), 《생태언어학》, Alwin Fill(1993), 한국문화사.  
 이익섭(1994), 《사회언어학》, 민음사.  
 오영나(2008), 《언어의 종말(LANGUAGE IN DANGREER)》, Andrew Dalby(2002), 작가 정신.  
 이상규(2007), <절멸 위기의 언어 보존을 위한 정책>, 《새국어생활》, 제17권 제4호, 국립국어원. pp. 23~48.